

사회

극심한 불황에 의뢰인 칼부림까지 광주 변호사업계 '패닉'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변호사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받거나 손해배상 협박을 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는 없었다.

특히 서 변호사는 구두담이를 해가며 주경야독으로 서울대에 입학, 사법시험까지 합격한 입지전적 인물로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재판에 성실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집에서 주변 변호사들의 충격은 컸다.

15일 오전 '의뢰인에 의한 변호사 피습사건'이 알려지면서 변호사와 사무장 10여 명이 서 변호사의 사무실

앞에서 웅성거렸다. 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최모(52)씨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며 "아무리 최근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고 있다고 해도 재판 결과를 놓고 성실하게 임했던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역 한 변호사는 또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직업이며 재판 결과를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제는 사건 수임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광주변호사회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의 진출 등으로 업계가 포화상

태에 놓인데다 수도권의 대규모 법무법인의 진출 등으로 변호사들의 수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률서비스의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변호사 기본 수임료가 수년째 동결된 상태에서 변호사 수만 증가, 재판결과에 대한 무리한 요구와 약속 등으로 소송을 맡으려는 변호인들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일부 변호사는 성의 없이 변호하고 수임료만 챙긴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해 다른 의뢰인을 소개받기를 바란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건이 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의뢰인의 권리는 향상되고 있는 반면 변호

사들의 사회적 권위는 하락하면서 1인 시위 등 재판결과에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교수의 판사 석공테러,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이어 변호사 피습 등까지 발생하면서 사법부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정호 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다 보면 처리결과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변호사 자신도 반성해야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주관적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라며 "경위를 파악한 뒤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5일 사건 의뢰인 조모씨가 서 변호사를 흉기로 찔러 후 다급하게 달아나고 있는 모습이 담긴 변호사 사무실 CCTV 화면. 조씨의 오른손에 흉기가 들려 있다.



변호사 등을 흉기로 찔러 조모씨가 경찰조사에 앞서 범행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

고교 집단폭행 목포 동영상 파문

전남경찰, 수사 착수

목포의 모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집단폭행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5일 "지난 13일 오후 유튜브에 '도와줘'라는 제목으로 1분30초짜리 동영상이 게시됐으며, 이 동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남학생 10여 명이 교실에서 한 학생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집단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들을 해당 학교로 보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 측에 생일을 맞아 축하하는 의미로 때리는 일명 '생일빵'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폭행 정도가 심해 학생들의 주장이 맞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경찰은 이날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들을 해당 학교로 보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원침 (8668) 김장두



생활고 비관 가장들 자살 잇따라

사업 실패 등 경제적 이유

40~50대 가장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3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서동 한 주택에서 A(44)씨가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형(52)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 주위에는 유서와 함께 타다남은 반개탄, 수면제 등이 놓여 있었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이달 초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으며, 지난 9일께 가족들이 광주북부경찰에 가출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남부경찰은 전남에서 축산업

을 하던 A씨가 최근 사업에 실패하고 중앙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9시8분에도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뒷밭 인근 나무에 B(50)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79)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유족들은 "지난 8월에 8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B씨가 지난 11일 오후에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광주북부경찰은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기아차 증설 현장 인부 숨져

15일 오후 3시45분께 광주시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제2공장 증설공사현장에서 공사업체 직원 최모(55)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씨가 크레인을 통해 자재를 2층으로 운반하던 중 크레인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떨어진 크레인이나 자재에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변론 잘못 인생 망쳐" VS "재판에 최선 다했다"

의뢰인-변호사 엇갈린 주장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씨는 사건 직후 범행 동기와 관련 "잘못된 변론으로 인생을 망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나를 가공공장을 운영했던 조씨는 지난 2007년 업체 내 분쟁으로 무고, 협박, 명예 훼손 등으로 구

속됐다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을 맡아 조씨를 변호했다.

조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서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했다"며 "판사행세를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지난 2007년 오히려 폭행당했는데 자신이 피의자로 뒤바뀌어 처벌받았다"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경찰·검찰·판사 모두 잘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광주지방법원 앞 1인 시위에서 사용한 플래카드에 "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무죄임을) 밝혀야 하는데 못 밝히고 직무를 유기해 고의적으로 유죄를 받게했다"며 "변호사와 경찰, 검사 등이 사과하지 않으면 영화 부러진 화살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적기도 했다.

하지만 서 변호사는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이는 최소한의 상식"이라며 "의뢰인은 인정하지 않는데 모르겠지만 재판의 결과도 최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구속돼 88일간 수감됐다가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1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낮춰진 것은 의뢰인이 불만족해 하더라도 상당한 성과라는 것이다. 또 "의뢰인이 재판결과에 대해 수 차례 항의해 왔고 수임료 등을 돌려줄 것을 요구해 모두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수십억 공금 횡령

여수공무원 구속

광주지청 순천지청은 15일 20억원 대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공금횡령)로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여수시청 직원들의 근무소 독채를 세무서에 이체하는 업무로 담당하는 과정에서 세금 일부를 자신의 비밀계좌로 빼내는 방식으로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김씨는 또 여수시가 발행한 여수상품권을 가맹점 업주들에게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10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2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월 오후 여수시 화양면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난 자신의 차 안에서 부인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 안에는 연탄불이 피워져 있고 수면제가 발견돼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이번 횡령사건이 들뜸날 것을 우려해 부인과 동반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상인들에게

배달된 낙지를 상습적으로 훔친 60대가 경찰에 달미.

○1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최모(63)씨는 지난 8월 21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모 수산물 가게 앞에 적재된 낙지 2상자를 비롯해 최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6만 5000원 상당을 훔쳐갔다는 것.

○시장 인근에 거주해 낙지가 배달되는 시간을 미리 알고 있었던 최씨는 새벽 차량을 이용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에서 "훔친 낙지는 모두 요리해 먹었다"고 진술.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입학문의 062)605-1114
입학문의 062)605-1115

2013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원서접수 수시 2차모집 2012. 11. 12(월) ~ 16(금) 정시모집('가군') 2012. 12. 21(금) ~ 26(수)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하나님의 진리와 조화하는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www.kwangshin.ac.kr

2013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특별전형]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원서접수 2012. 10. 8(월) ~ 19(금)

[일반전형]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원서접수 2012. 11. 12(월) ~ 30(금)

신 학 대 학 원 석사 - 신학과(M.Div.) 30명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학부과정이 동일학과 출신자만 해당됨

신 학 대 학 원 석사 - 신학과(Th.M.) 33명
신학연구과(M.A.T.) 5명
유아교육학과(M.Ed.) 12명
음악학과(M.A.) 12명

신 학 대 학 원 석사 - 신학과(M.Div.) 50명
교 육 대 학 원 석사 - 유아특수교육전공/초등특수교육전공/상담교육전공(M.Ed.) 20명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 상담심리치료학과(M.A.) 22명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 사회복지학과(M.S.W.) 20명
국 제 대 학 원 석사 - 한국어교원학과(M.A.) 20명

보육교사교육원 평생교육원 생활한방교육원 외국인근로자성정어제(한국어과정) 한국어교육원 여자신학원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목회자사모신학원 요양보호사교육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